

성큼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탈주를 꿈꿀 수 있는 시간! 그런 매력에 있기에 방학이란,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나 봅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쫄쫄 줄지어 있는 문자들 사이를 넘나들며, 낯선 곳으로 마음껏 모험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멋진 일 아닐까요?

백화현·관악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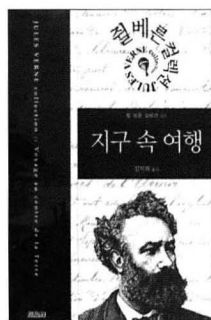
《검은 여우》 메지 바이어스 지음/해설과나무를 옮김/사계절 172쪽/값 6,500원



이 책은 사계절아동문고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어른이 읽기에도 감동스러운, 매우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톰은 겁이 많고 숫기가 없는 10살 난 소년이지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유럽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여름방학 두 달 동안을 낯설기 짝이 없는 시골 이모네 농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톰의 기분이 엉망이 되었던 것은 당연했지요. 하지만 숲에서 우연히 매혹적인 검은 털의 여우를 만나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맙니다. 검은 여우의 가볍고도 날쌔 몸놀림, 바람에 찬란히 나부끼는 검은 털, 고개를 가웃한 채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연한 금빛 눈, 새끼 여우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멀쩡이 앉아 흐뭇하게 지켜보고 앉아 있던 늙은 모습, 이모부에게 잡혀온 새끼 여우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에 응답하던 그의 애절한 울음소리….

전혀 원하지 않았던 낯선 곳에서, 우연한 만남으로 설렘과 그리움, 용기와 이해심을 배울 수 있었던 톰은 경충 자란 키만큼이나 마음 또한 훌쩍 크게 됩니다. 이런 사건, 이런 비약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은근히,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구 속 여행》 쥘 베른 지음/김석희 옮김/열린책들 382쪽/값 9,000원



《15소년 표류기》, 《해저 2만리》, 《80일간의 세계일주》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쥘 베른. 그는 1862년, 그의 나이 서른네 살에 처음으로 발표한 《기구를 타고 5주간》 이후로 경이로운 모험여행에 관한 걸작들을 20년 동안 붓물 쏟듯 쏟아낸 분입니다. 그는 그의 튼튼한 상상의 날개 위에 우리를 앉혀 놓고서, 때로는 우주 공간 밖으로, 때로는 깊고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또 때로는 분화구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 땅 속으로 쉴 새 없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의 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 안의 모험정신과 과학적 상상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통쾌한 웃음까지도 선물받을 수 있지요.

이 작품 역시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가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화산의 한 분화구가 지구의 중심에까지 뚫려 있다니! 하지만 그는 그의 해박한 과학적 지식과 치밀한 내용구성, 뛰어난 묘사력으로 그 황당무계한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시키고 맙니다. 얼떨결에, 성마르고 고집불통인 광물학자 리텐브로크 교수를 따라 지구 속 탐험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악셀처럼, 얼떨결에, 쥘 베른의 이 작품을 한 번이라도 읽게 된다면, 우리의 잠자고 있던 과학적 상상력과 모험정신은 두 날개를 쭉 펴고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 이 밖에도 1999년 10월 31일, 겨우 18세의 나이로 그의 요트 '라이언하트'를 타고 최연소 무기항, 무원조 세계 일주 항해 기록을 세운 제스 마틴의 항해 이야기 《라이언하트》(인북스)와 세계사 교과서 한 권과 노트북을 들고서 이슬람을 찾아 배낭여행을 떠났던 정다영의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창작과비평사)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낯선 세계를 찾아 떠나는 모험여행, 그것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사람을 훌쩍 크게 만들지요. **추천**